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7/14~2025/07/20]

2025.07.21

[로봇] 양산에 진입하는 중국

- 네이버도 휴머노이드 개발 소식. MIT와 공동 개발 추진
- 유니트리 상장 돌입. 지난 주에는 각플러스가 홍콩 증시에 상장
- 중국 휴머노이드 잇따라 양산 계약 소식. 개발에서 양산 페이프로 전환

[방산] 건조한 폴란드향 출하

- 트럼프와 미국, 라우 휴전 지연 속, 러시아 압박 및 우크라 지원으로 선회
- 독일, 방산 기업 생산 확대 압박. 프랑스도 국방비 지출 2배 증액. 유럽 무기 수요는 확실
-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 심화. 천궁 수출 기회. 이라크도 한화와 막판 타결

[항공] 부진한 일본 노선

- 대한항공, 중형기 중심 23대 도입 계획. 대형기는 퇴역 수순
- 플라이강원이 파라타항공으로 복귀. 장거리 기재 A330-200 도입
- 아시아나와 에어서울 인천 T2 이전 스케줄 공개. 아시아나는 내년. 에어서울은 올해 9월

[조선] 글로벌로 나가는 HD현대중공업

- 한화오션의 양명 컨테이너 7척 수주 소식. VLCC 이어 연이은 상선 수주
- 필리조선소, 미국 군함 생산 라이선스 연내 취득 추진. 해군 프로젝트 입찰 제안 수행 중
- HD현대중, 인도 합작 조선소 설립 추진에 이어 모로코 카사블랑카 조선소 운영권 입찰 검토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양산에 진입하는 중국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개발을 넘어 양산 페이스로 진입 중. 애지봇과 유니트리가 240억원 규모 수주를 기록. 한국도 연구용 휴머노이드 중심 매출화 노력 중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9)

[양산에 진입하는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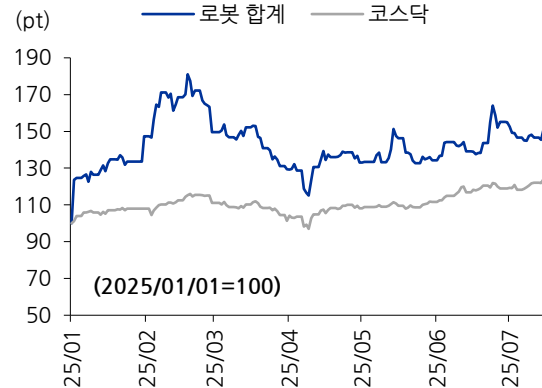
-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23~24년이 대규모 제품 개발 진행 이후, 25년 하반기 들어 양산 단계로 전환 중. 중국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인 유니트리 CEO 마저도 아직 '대규모 상용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 기술적 진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양산 및 활용 통해 기술 검증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지난 주, 애지봇과 유니트리가 차이나 모바일로부터 각각 150억원, 89억원을 수주. 상장사 유비텍도 텐궁 싱저를 출시 4개월만에 100대 납품했다는 소식. TSMC도 휴머노이드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유니트리는 이미 연 매출 10억위안을 넘어섰다고 밝힘. 중국에서는 조금씩 휴머노이드 관련 매출화가 진행되는 중.
- 한국에서도 지난 주 로보티즈가 오픈 AI 향 휴머노이드 공급 논의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 강세. AI 워커 출시 전 선주문에서만 50여대 물량 확보. 올해 100대, 내년 200대 판매 목표. 레인보우로보틱스도 RBY-1 누적 80대 판매했고, 올해에만 100대 판매 목표를 내세움. 중국의 상용화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 확인

Key Chart: 중국 주요 휴머노이드 양산 계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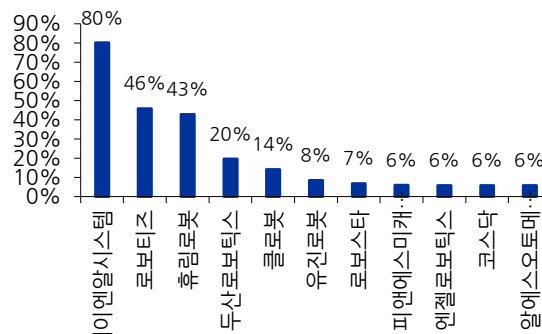
기업명	주요 매출화 현황
유니트리 로보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나 모바일 89억원 수주 (매출 10억 위안 돌파)
유비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텐궁 싱저 출시 4개월 만에 100대 납품
애지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나 모바일 150억원 수주 (올해 5,000대 생산 목표)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7/14~07/20)

[산업용 로봇]

- 뉴로메카, 포스코 '압연자동화설비' 공급사 등록
- 한화로보틱스, 수백억 규모 배터리 이송 로봇 수주 기대

[서비스 로봇]

- CJ대한통운, '이동형 로봇 팔레타이저' 상용화
- 유진로봇, 자동차 부품 이송로봇 공급

[기타(정책/부품/SW)]

- 로보티즈, 오픈AI에 휴머노이드 연내 공급
- 네이버, MIT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이달 기능 테스트
- 씨메스, 7억 규모 로봇 자동화 제조공정 공급계약
- 빅웨이브로보틱스 '158억 대형 국책 연구과제' 주관
- 폴리텍대학, 두산로보틱스와 로봇 인재 육성 협력
- KIRO-국방로봇학회, 국방로봇 기술협력 MOU 체결

[Global]

- 中 애지봇·유니트리, 240억원 규모 휴머노이드 로봇 수주
- 유니트리 CEO "휴머노이드, 상용화까진 시간 필요"
- 유니트리, 올해 로봇 370만대 출하 전망
- 유니트리 中 본토 상장 절차 착수. 기업가치 1.9조 전망
- 中 시아순,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 2종 발표
- 유비텍, '텐궁 싱저' 출시 4개월 만에 100대 주문 돌파
- 유비텍, 세계 최초 '자율 배터리 교체' 휴머노이드 개발
- 日로손, '조리 로봇' 도입해 5분만에 14가지 요리 제공
- 중국 대표 AMR 기업 각플러스 홍콩 증시 입성
- 피규어AI, 차세대 휴머노이드용 로봇 배터리 공개
- 獨 뉴라 로보틱스, GFT 테크놀로지스와 제휴



Weekly Keyword

건조한 폴란드향 출하

6월 폴란드 향 출하량은 K-9 15대, 천무 0대, K-2 18대로 파악됨. 현재 페이스라면 3분기 인도량이 2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방산 기업들 실적 또한 건조한 성장 예상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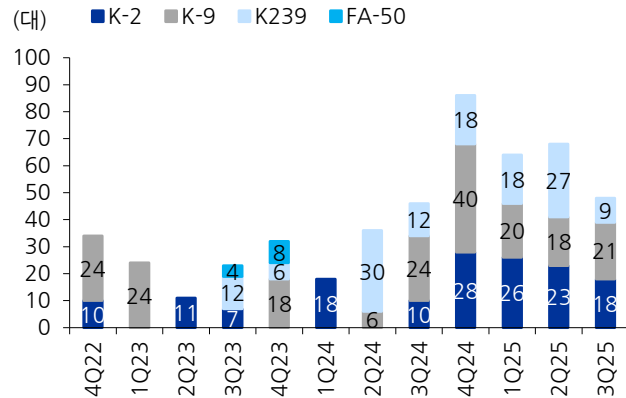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37)

[건조한 폴란드향 출하]

- 6월 당사 추정 폴란드 향 K-9 자주포 및 천무 모듈, K-2 전차 물량은 각각 15대, 0대, 18대. K-2 전차의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의 출하량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됨. 2분기 폴란드 인도 물량은 K-9 18대, K-2 23대, 천무 27대로 추정되며, 3분기에도 2분기와 유사 또는 그 이상의 인도가 기대됨. 6월 출하 실적을 반영한 3분기 인도 추정치는 K-9 21대, K-2 18대, 천무 9대임. 7월 출하까지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 건조한 인도 페이스가 이어지는 중. 국내 방산 업종 실적도 동행하여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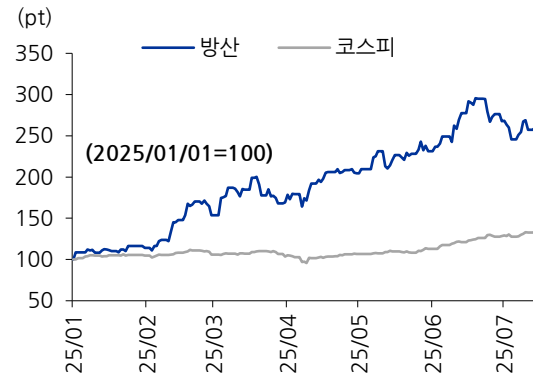
Key Chart: 폴란드 향 인도 물량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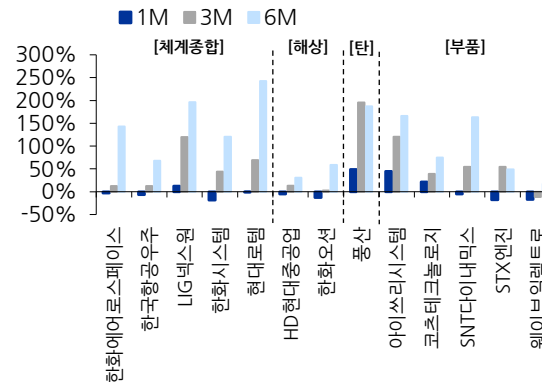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3Q25 물량은 추정치. 6월 출하까지 반영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07/14~07/20)

[수주/계약]

- 천궁 이라크 수출 청신호. 한화·LIG넥스원 납품가 합의
- PAC-3 10년, SAMP/T 7년 소요. 천궁 II 유럽 진출 기회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유럽 총괄에 벤 허드슨 호주법인 CEO 선임
- LIG넥스원, 신형 미사일 2종 공개 '수출시장 정조준'
- KAI 자회사 KAEMS, 가동률 88%. 첫 영업익 '흑자' 기대
- 日 중등훈련기 교체 공 들이는 KAI. 기술 협력 제안
- 현대로템, 차세대 전차 'K3' 시제 개발 준비 착수
- 현대로템, 부산 신항 7부두에 '항만 AGV' 57대 공급
- 영풍전자, 獨 헨슬트와 비행기록장치 생산 계약
- 방산 특화 코츠테크놀로지 자사주로 EB 발행 성장 시동

[기타]

- 육군, 6개국 외국군 대상 K2·K9 운용·정비 노하우 교육
- 방사청, 웨이비스 방문. 국산 질화갈륨 반도체 육성 논의

[글로벌]

- 독일 정부, 레오파르트 전차 제작사 지분인수 검토
- 獨 국방장관, 방산업계에 "무기 생산 속도 높여야"
- 마크롱 "국방예산 2배로". 27년 국방예산 640억 유로
- 우크라 "신형 무기 달라, 성능 테스트해줄겠다"
- 독일, 사거리 2천km 미사일 포대 사기로
- EU, 슬로바키아 반대로 러시아 제재 패키지 채택 무산
- 트럼프 "50일내 러-우 휴전 합의 없으면 러에 혹독한 관세"
- 트럼프, 우크라에 '모스크바 사정권' 미사일 등 지원할듯
- 美 유럽사령관 "나토, 러 칼리닌그라드 점령 가능"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부진한 일본 노선

7월 들어서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 탑승률이 70%대로 내려앉음.
폭염과 지진설의 영향으로 파악됨. 고수익성을 기록하던 일본 노선의 수요 조정이 장기화될지 귀추 주목 필요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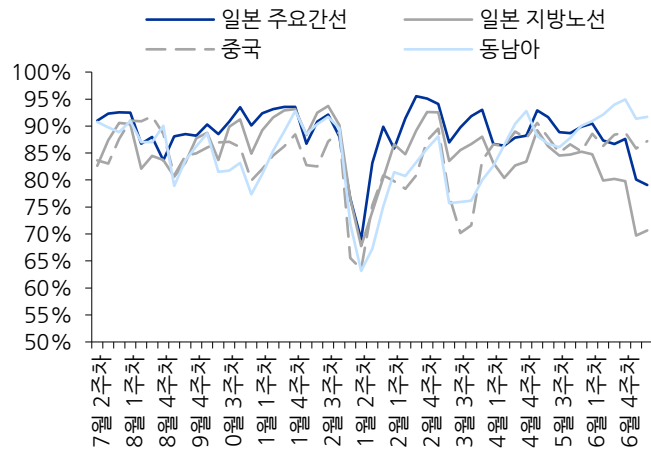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7)

[부진한 일본 노선]

- 7월 들어,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 탑승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80% 대를 유지하던 탑승률은 70%대로 내려 앉은 것으로 파악됨. 일본 대지진 음모론과 폭염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지진과 상대적으로 영향성이 낮은 휴양지인 오키나와 노선만 수요 호조를 기록 중.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동남아 노선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견조. 그동안 고수익 노선으로 LCC 수익성을 지켜왔던 일본 노선이 흔들리고 있음. 단기 조정일지, 회복 추이 예의 주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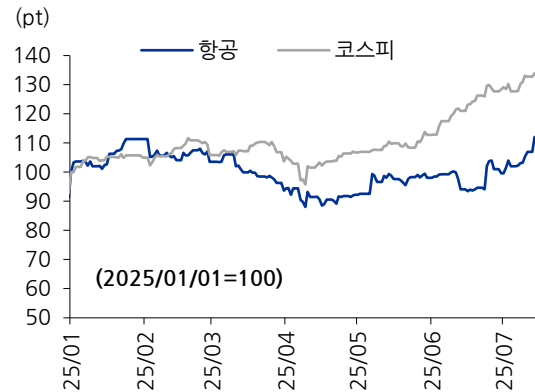
Key Chart: 제주항공 노선별 탑승률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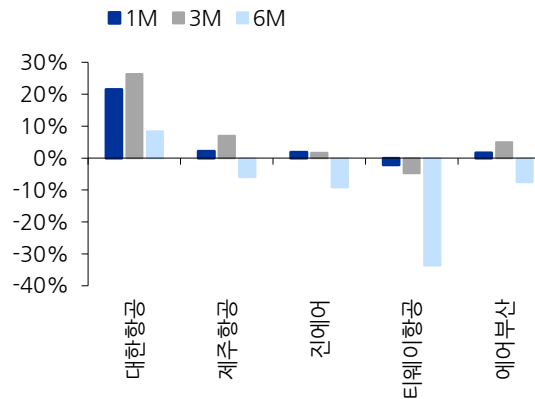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좌석 189석으로 산출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7/14~07/20)

[여객/화물]

- 6월 日방문 외국인 7.6%↑ 대지진설 속 홍콩 33.4%↓
- 에어프레미아, 워싱턴 노선 추가 논의 중
- 투르크메니스탄항공, 인천-아시가바트 신규 취항
- 에어인천, 새 사명 '에어제타'로 상표 등록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올해 중형 항공기 23대 도입
- 아시아나항공, 내년 1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이전 확정
- 에어서울, 9월 9일부터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로 이전
- 소노인터내셔널·티웨이항공 연계 프로모션 출시
- 서준혁 대명소노 회장, 티웨이 서울사무소 첫 방문
- 파라타, 27일 1호기 A332 인수. 9월 국내·10월 국제선 취항

[기타]

- KAEMS, 타이항공 운항정비 개시. 글로벌 MRO 사업 확대
- 글로리아항공, KAEMS와 MOU. 항공기 MRO 시너지

[글로벌]

- 트럼프, 멕시코 항공기 입국제한 조치
- 델타항공, 美 시애틀 공항에 프리미엄 라운지 2곳 오픈
- 유나이티드항공, EPS 하향에도 '회복 신호'
- 보잉, 걸프에어 보잉 787 드림라이너 18대 추가 판매
- 中 3대 항공사, 부문 회복에도 여전히 적자
- 베트남항공, 하노이-밀라노 직항노선 취항
- 모스크바-평양 직항 여객기 27일 첫 운항



Weekly Keyword

글로벌로 나가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인도 코친 조선소와 협력에 이어 이번에는 모로코 조선소 운영 입찰에 나섬. 조용히 글로벌 사업 진출을 준비 중. 상반기 미국 HII, ECO 등과도 협력 체결한 바 있음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7)

[글로벌로 나가는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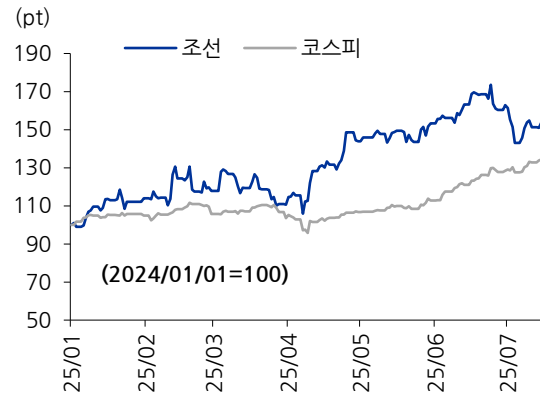
- HD현대중공업이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조선 역량 확대를 조용히 추진하고 있음. 최근 인도 국영 코친 조선소와 조선분야 장기 협력 MOU와 더불어, 모로코 카사블랑카 신조선소 건설 및 운영권 입찰 (2040년까지 100척의 상선을 건조)에서 유력 후보자로도 부상.
- 6월 미국 ECO와 미국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 포괄적 파트너십, 4월 미국 HII와 방산 & 상선 건조 협력 파트너십 및 페루 SIMA 조선소와 현지 조선소 설립 추진 보도도 전해진 바 있음.
-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및 호주 오스탈 인수에 나서는 한화오션과는 분명히 다른 전략으로 접근. 언뜻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현지와 파트너링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 HD현대미포베트남, 필리핀 수빅 조선소, 사우디 조선소 지분 투자 등 HD한국조선해양 그룹은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글로벌 사업을 준비 중

Key Chart: 모로코 카사블랑카 조선소 입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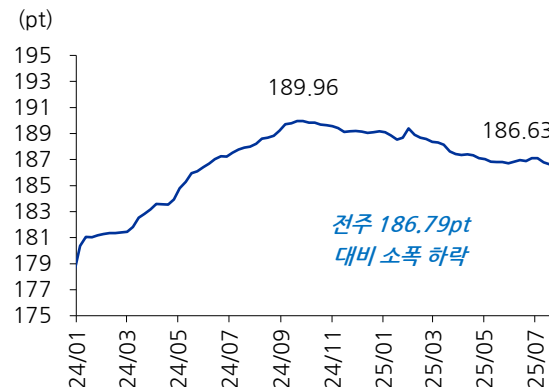
기업명	현황
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로코 카사블랑카 신조선소 건설 및 운영권 입찰 4월 국제 입찰 공고, 4개 컨소시엄 제안서 접수 (프랑스 나발 그룹은 불참으로 확인) 현대중공업은 모로코 현지 엔지니어링 업체 소마제과 협력
사업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 규모는 21헥타르 244m x 40m 드라이도크, 9천톤급 리프팅 플랫폼, 450톤 갠트리 크레인, 820m 부두 등 포함 연간 500척 이상 선박 정비 가능

자료: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7/14~07/20)

[상선/해양]

- 한화오션 '2.2조' 대만 양밍 컨테이너선 7척 수주 확실
 - HD현대중공업, 월 기본급 13만3000원 인상 잠정 합의
- ### [특수선]
- KDDX 사업,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경쟁입찰' 가능성 부상
 - 필리조선소 "美 해군 프로젝트 정보 요청. 입찰 진행 중"
 - 한화오션, 폴란드 국방위 물밀 접촉. 오르카 구축함 전달
 - 한화오션, 캐나다 지사 설립 추진

[기타]

- HD현대중공업, 모로코 카사블랑카 조선소 운영권 입찰 검토 중
- 산업부 "하반기 한미 조선협력 본격 추진"
- 조선업 호황 업은 한화오션, 회사채로 700억 조달 추진
- HD현대중공업, 美 액셀러레이트 에너지 LNG FSRU 진수
- HD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트리온 FPU' 속도
- 한화오션, 해수부 주관 '차세대 쇄빙선' 계약 체결 임박
- HD현대삼호, 광양항 자동화부두 항만 크레인 제작 착수

[글로벌]

- SCFI 6주 연속 하락. 미주중동 노선 중심 운임 조정 국면
- 벤처글로벌, Eni와 LNG 장기계약. 20년간 연 200만톤 공급
- Argent, 루이지애나 25MTPA LNG 수출 검토 개시
- 트럼프 정부 백악관 조선 사무국 사실상 해체
- 미국 항만운행사, 중국 항만크레인 고율관세 시행 유예 요청
- MSC, 22k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 중국에 발주
- 中,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투자 추진
- 폴란드 국방차관, 프랑스 방문. 잠수함 사업 제안 실사 평가